

iM FX Brief

SK하이닉스 ADR, 게임 체인저 역할 할까?

FX Brief

[경제] 박상현 2122-9196 shpark@imfnsec.com

주간 동향: 6월 미국 고용지표 여파로 달러 약세 전환

- 3주만에 달러화가 약세 전환함.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 6월 미국 일자리수로 미 연준의 금리인상 기대감이 일부 약화된 영향이 달러 약세 압력으로 작용함
- 유로화 역시 달러 약세 영향으로 반등하면서 다시 1.14달러 수준을 회복함. 물가 안정세와 서비스 경기 반등이 유로 강세를 지지함. 6월 유로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 2.8%로 전월(3.2%)보다 낮아졌고 6월 유로존 서비스 PMI지수도 전월 47.7에서 49.4로 반등함. 유가발 경기둔화 압력이 완화됨
- 엔화도 강세 전환됨. 일본 정부의 엔 약세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 경계감 영향으로 달러-엔 환율이 161엔대로 하락함
- 위안화 역시 달러 약세와 더불어 주요국 통화 강세에 힘입어 강세를 보임
- 호주달러도 전주 큰 폭의 약세에 따른 되돌림과 달러 약세 및 위안화 강세 등에 힘입어 강세를 기록함
- 달러-원 환율은 주중 1,550원대까지 상승했지만 달러 약세, 엔 강세 그리고 정부의 스무딩오퍼레이션 영향 등으로 전주대비 소폭 하락한 채 한주를 마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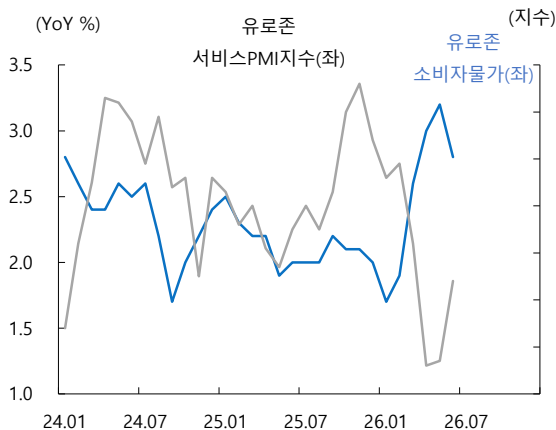
	7월 3일 증가	전주 대비 (%)	전년말 대비 (%)
달러화 지수	100.9	-0.49	2.58
유로-달러	1.144	0.47	-2.63
달러-엔	161.3	-0.25	2.95
역외 달러-위안	6.79	-0.29	-2.73
호주달러-달러	0.69	0.64	4.00
달러-원	1,530.0	-0.38	5.91

달러-원 환율 증가는 익일 2시 기준

금주: SK하이닉스 ADR 상장 경계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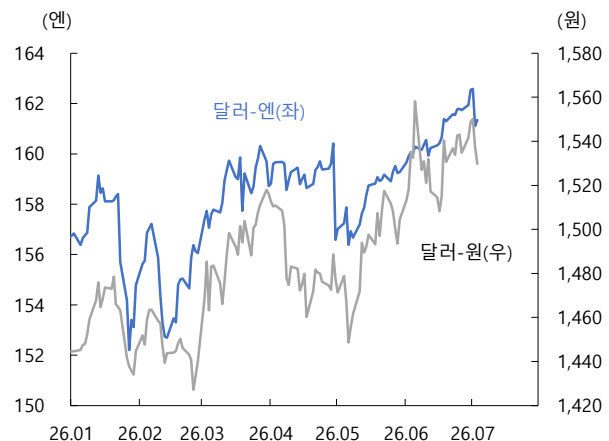
- 달러화에 큰 영향을 줄 이벤트 및 경제지표가 부재한 가운데 엔화의 추가 강세 여부가 달러화 및 원화 환율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일본 정부의 시장개입으로 161엔 수준까지 하락한 달러-엔 환율의 추가 하락 혹은 일본 정부의 추가 개입 여부가 주목됨
- 달러-원 환율의 경우 엔화의 추가 강세 여부와 더불어 외국인의 국내 주식순매도 흐름도 주목되는 변수임. 7월 들어서도 외국인의 국내 주식순매도 규모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달러 수급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음. 외국인의 주식순매도 축소 여부가 달러-원 환율 흐름에 중요한 변수임. 또한, SK하이닉스의 ADR 상장에 따른 달러 공급 확대 경계감 역시 달러-원 환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임
- 금주 달러-원 환율 밴드는 1,510~1,550원으로 예상함

그림1. 유로존 소비자물가 둔화 속 서비스 경기는 반등



자료: Bloomberg, CEIC,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달러-엔 및 달러-원 환율 동반 하락



자료: Bloomberg, CEIC, iM증권 리서치본부

Compliance notice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제,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제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